

“실적으로 본원 경쟁력 입증”… 지역별 기업영업 확대 나서

2026 카드사 생존전략

KB국민카드

김재관 사장 “그동안 축적한 역량 성과로 연결, 전환점의 해 삼을 것”
기업영업본부 등 신설 조직개편

김재관 KB국민카드 사장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그동안 축적해 온 역량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전환점의 해로 삼고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실행하는 조직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이 KB국민카드의 전환점이란 다짐이다.

◆ ‘본원 경쟁력’ 강화…실질 성과 집중
김 사장은 본원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과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는 “선택하고 책임지며 끝까지 실행하는 한 해를 만들 것”이라며 “말이 아닌 행동과 실적으로 본원적 경쟁력을 입증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실행 중심의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고, 현장의 판단이 신속하게 실행과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김재관 KB국민카드 사장.

/KB국민카드

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업계 내 순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KB국민카드는 ‘실적 수성’이란 과제에 당면했다. 업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KB국민카드를 현대카드가 맹추격하면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KB국민카드(2817억원)와 현대카드(2550억원)의 연결 당기순이익 차이는 267억원에 불과했다. 당기순익 차가 약 1400억원에 달했던 지난 2024년과는 다른 양상이다.

◆ 본업 내실 다지고 핵심 사업 ‘박차’

가장 먼저, KB국민카드는 본원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골자는 기업영업 확대. 기업영업그룹 아래에 ▲기업영업본부 ▲기업영업지원부를 신설해 기업영업에 집중하도록 했다. 기업영업본부 산하에는 우수기업영업부 4개와 기업영업부 14개를 신설, 지역별 기업 고객과 마케팅 업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직 개편을 두고 김 사장은

“실행력과 현장 영업, 미래 핵심사업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도 시행했다”며 “고객과 맞닿아 있는 현장에서의 판단과 실행이 보다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영업 조직 전반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미래 핵심 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고객 분석과 상품, 디지털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에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주소를 연동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결제 기술 특허를 냈다. 디지털 자산과 신용카드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기술로, 결제 시 전자지갑 내 스테이블코인 잔액이 우선 적용된다. 잔액이 부족한 경우 신용카드 결제로 자동 처리된다.

한편, 디지털·인공지능(AI)·데이터 분야도 조직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19일 “KB국민카드는 디지털 기반 사업 추진과 데이터 활용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을 정비해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삼성화재

‘컴플러스 데이’ 개최

삼성화재는 지난 16일 임직원의 준법 의식을 고취하고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2026 컴플러스 데이(Complus Day)’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 기조에 발맞춰 임직원들에게 올바른 컴플라이언스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했다. 올해 행사는 컴플라이언스팀과 소비자정책팀, CISO 등 내부통제 관련 부서들이 함께 참여해 ‘디지털 시대의 올바른 컴플라이언스’라는 부제로 운영됐다.

이문화 삼성화재 사장은 “디지털 시대의 컴플라이언스는 안전한 성장을 가속하는 정교한 조타장치와 같다”며 “꾸준한 준법윤리 실천을 통해 흔들림 없는 삼성화재의 중심축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삼성생명

‘연금LAB’ 서비스 개시

삼성생명은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을 연구하는 ‘연금LAB’ 서비스를 지난달 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금LAB은 ‘Life And Balance’의 의미를 담아 연금을 통해 고객이 미래와 노후를 균형 있게 준비하도록 돕는 디지털 연금 분석 서비스다. 선별된 콘텐츠를 하나로 통합해 고객이 연금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금LAB은 고객의 연령, 직업, 자금여력 등 개별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상품을 알려준다. 만약 연말정산 시준인 연초에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직장인을 위해 연간 600만원 납입 시 최대 99만 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을 제안하는 최적의 시뮬레이션을 추천한다.



하나손해보험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참여

하나손해보험은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이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을 통해 불법 도박에 노출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의 중요성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하나손해보험은 지난해 12월에 참여한 인천경보합연구원 원장의 추천으로 참여했다.

배성완 하나손보 대표이사는 “불법 사이버 도박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청소년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이 중요한 만큼, 하나손해보험도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전동킥보드 사고 매년 38% ↑… 대여업체 의무보험 목소리

보험업계, 2024년 PM사고 2232건 정부, PM법에 공공보험 근거 포함 개인용 PM 약 30% 사각지대 우려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가 최근 5년 사이 가파르게 늘면서 정부가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대여업체 책임보험 의무화’가 제도권 과제로 부상했다. 피해 보상 공백을 줄이려면 의무보험의 운영 기준과 함께 개인용 PM 사각지대까지 단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PM 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늘어 최근 5년 연평균 3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는 23만건에서 19만6000건으로 줄었지만, PM 사고는 399.3% 증가해 ‘역주행’ 양상이

뚜렷했다.

사망자도 2019년 8명에서 2024년 23명으로 약 3배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 대비 PM 사고 비중은 0.2%에서 1.1%로 상승했다. 사고 원인 측면에서 PM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비중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고 증가세는 ‘규제 공백’ 논의로 이어졌다. 정부는 2025년 12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을 마련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를 의결했다. 법안은 국가·지자체 책무, 이용자·사업자 의무, 대여사업 운영체계 등을 포괄 규정하고 특히 대여사업자에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는다. 피해자 보호·구제를 위해 공공보험이나 보상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 정비와 보험산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여업체 책임보험 의무화 도입시 ‘무보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보장 공백을 줄이고, 사고 처리의 예측가능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는 피해자나 가족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일부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개인 PM보험 등 ‘조각난 보상 경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가입 여부에 따라 보상 절차와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공유 PM 비중이 큰 점도 의무보험 논리의 근거로 제시된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경험은 73.6%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국내 공유 킥보드 이용 비중은 약 70% 내외로 추정된다.

다만 의무보험이 ‘대여’에만 적용될 경우, 개인 소유 PM이 새로운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은 과제로 꼽힌다. 이에 따라 약 30%로 추정되는 개인용 PM 이용 사례의 보장 공백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확대 방안이나 본계약·특약 형태의 상품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대여용 PM에 대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경우 대여업체 의무보험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의무보험 대상을 개인용 PM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또는 본계약 또는 특약 형태로 가입 가능한 보험상품을 개발·공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대우건설, 7923억 사직4구역 재개발 수주

지상 39층 총 11개동 1730세대 규모

대우건설은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일원에 위치한 ‘사직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사직4구역 재개발은 지하 4층~지상 39층 11개동, 1730세대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공사금액은 7923억원 규모다.

사직4구역은 부산 지하철 1·4호선 동래역, 3·4호선 미남역, 4호선·동해선 교대역이 인접해 인근 주요 도심지로 이동이 편리한 여세권 입지다. 주변에는 동래구의 교육 인프라와 대형 백화

점, 온천천, 사직종합운동장 등 정주여건을 고루 갖추고 있어 부산 내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대우건설은 사직4구역에 ‘프루지오 그라니엘(PRUGIOGRANIEL)’이라는 단지명을 제안했다. 사직을 대표할 위대한 주거역작을 의미하는 ‘그랜드(Grand)’와 하늘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시엘(Ciel)’을 조합한 명칭이다.

단지 특화를 위해 대우건설은 글로벌 설계사 ‘아카디스(ARCADIS)’와 협업한다. 두 곳의 최상층 스카이라인 커뮤니티와 1900평 상당의 ‘트리플 선크 파크’를 조성해 대단지 조경 및 휴식 공간을 극대화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카카오뱅크 ‘AI 수어 상담 서비스’ 오픈

스마트폰 앱으로 누구나 이용 가능
“금융 사각지대 해소, 포용금융 실현”

카카오뱅크가 청각장애인 고객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AI 수어 상담 서비스’를 정식 오픈했다고 19일 밝혔다.

카카오뱅크 앱 ‘고객센터’ 메뉴에서 ‘수어 상담’을 선택하거나, ‘AI 검색’창에 ‘수어 상담’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전용 기기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청각장애인에게 가

장 익숙한 언어는 텍스트가 아닌 수어’라는 점에 착안해 기획됐다. 수어는 일반 국문과 문법 체계가 달라 텍스트 중심의 금융 안내만으로는 복잡한 금융 용어나 업무 절차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러한 정보 접근성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카카오뱅크는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금융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AI 수어 상담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술 기반의 접근성 혁신을 확대해 금융 사각지대를 줄이고 포용 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